

# 아동 음란물 중독·성도착증 못막으면 제2, 제3의 고종석 계속 나온다

〈초등생 남자 성폭행범〉

## 광주지법, 무기징역 선고

잠자던 7세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지난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항소심 감경이나 가석방에 대비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사 범죄 전력 없고, 자백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 여아가 살아났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법정에 선 고씨는 판사의 질문에 비교적 크게 '네'라고 답변하면서 묵묵하게 표정 변화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사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2부 최영아 검사는 "고종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 감성 없이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5살 때 생모가 사망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재혼 이후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정한 정착지 없이 가구공장, 공사관 등을 전전했다. 일 없는 시간은 거의 PC방에서 보냈으며, 게임과 아동음란물을 탐닉했다. 2번의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가학적·

변태적 방법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적 습벽 조사, 정신감정 등에서 폐쇄적 소아 성기호증, 성도착증 등을 갖고 있으며, 성범죄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고씨와 같은 아동성범죄자의 범행 배경에는 불우한 가정환경, 음란물 중독, 감정조절 실패, 사회성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사회 양극화로 영세계층이 늘고, 음란물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갖가지 이유로 '외톨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고종석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해바라기센터 임수진(40) 소장은 "아동 성범죄의 원인을 한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으나, 최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인 아이들보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성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당시 7세 여아의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아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큰 수술을 2차례 이상 더 받아야 한다"며 "범행 당시처럼 비탄 오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굴착기 덮친 전봇대

지난 31일 오후 1시5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H1아파트 앞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작업중이던 굴착기를 덮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자 A(44)가 부상을 당했고 전선 등이 끊어져 일대 700여가구가 1시간 이상 정전되기도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소변 못가린다” 아들 때려 숨지게 해

### 지적장애 엄마 영장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30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판사결함은 지난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 A(3)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반모(여·37)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생후 30개월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신도에게 전화해 자신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고, 반씨의 집으로 찾아온 신도가 숨진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군은 발견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채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 가랑 뻐허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반씨는 A군이 태어

난 직후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지난달 7일 아들을 키우겠다고 집으로 데려온 뒤 14개월 된 자신의 딸과 함께 살아왔다.

경찰은 반씨가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빗자루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 반씨의 폭행으로 A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1일 부검을 실시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끊이지 않는 어린이 성폭력

광주지법 관할 작년 233건

했다.

지난 2012년 광주지법 관할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233건이나 발생했다. 남자 어린이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강진)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이 36건, 장애인 대상이 39건, 13세 이상~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이 1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납치·성폭행 피고인 고종석(24)씨와 남자 아동을 연이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

했다. 법원은 고씨와 강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검찰은 16세 미만의 친구 딸을 강간한 피고인과 지적장애 2급인 16세 미만의 장애인을 성폭행한 피고인 등 성폭행범 4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으로 3월19일부터는 청구 대상이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폭행범으로 확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제법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으로 3월19일부터는 청구 대상이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폭행범으로 확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제법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으로 3월19일부터는 청구 대상이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폭행범으로 확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제법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형 확정

법관 직위는 영향 없어

지는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31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관찰자를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헌법상 급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게 되므로 이번 판결이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 영향을 주

지는 않는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 이호균 前 도의회의장 항소심서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과 교비 9억 원 등 모두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립예술단 파업 일단락

노조, 예술감독 재위촉 자문위원 추천

공공예술노조 광주시립예술단 지부(이하 시립예술단 노조)와 광주시의 단체협약이 잠정 타결됐다.

이에 따라 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31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으나, 광주시향의 정기공연은 취소됐다.

〈관원기사 12면〉 시립예술단 노조와 광주시는 이날 오전 교섭을 갖고 예술감독 재위촉시단원 등의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애초 예술감독 재위촉 시 소속 단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으나 한 발 양보해 자문위원 선정 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냈다.

노조는 자문위원이 5명 이하일 때 1명을 추천하고, 5명 이상이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중 목욕탕 가스 누출 소동

○대중탕에서 누출한 목욕을 즐기던 남성들이 갑자기 헝거워질 때는 등 가스 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

○화순소방서는 지난 31일 오후 3시30분께 화순군 화순읍 한 목욕탕 소독기계에서 열수가스 누출돼 문모(50)씨 등 9명이 눈과 목이 따갑다고 고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밀폐된 목욕탕 안에서 열수성분의 소독제를 물에 과도하게 타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 /화순=조성수기자 css@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신장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원한의원(의)로병고심의원 제120106-충919호(광)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깍하고 눈물이 흐른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울기까지 걸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 등!!

- 교육인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액 1,700,000원;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연성실습(10일)이 가능한 분야여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